

박영환 Younghwan PARK (b.1998-)

| 학력 |

2024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2016 부산예술고등학교 미술과 졸업

| 개인전 |

2024 8th 맥화랑미술상 박영환展 《흰》(맥화랑, 부산)

2023 우리가 지내온 세계에 서서 바라본 세상은 고요한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새우고 (전시공간 영영, 부산)

2022 박영환 개인전: 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 (현대미술회관, 부산)

| 기획 |

2022 '상생'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후원)

| 그룹전 및 아트페어 |

2024 ART BUSAN (백스코, 부산)

2024 2024 BAMA (백스코, 부산)

2024 ONE Art Taipei (대만)

2023 Peace, Piece, Place (갤러리휴, 부산)

2023 Gift Vol.1 여기에도 눈 (상상마당, 부산)

2023 울산아트페어 청년작가지원전 'Attention Now 2023' (UECO, 울산)

2023 맥화랑연례기획 <10-200, 행복하그림전> (맥화랑, 부산)

2023 봄의 휴식 展 (이젤갤러리, 부산)

2023 'Notice' 展 (상상마당, 부산)

2023 아시아프 작가 초대전 (갤러리 다온, 서울)

2022 '상생' 展 (부산광역시 후원)

2022 울산아트페어 (UECO, 울산)

2022 와유산수 展 (갤러리 봄, 대구)

2022 부산 청년미술로 꿈꾸게 하다 (금련산역 갤러리, 부산)

2022 청년예술작가 전시회 '잇다' 展 (해운대 아틀리에/해리단 뮤지엄, 부산)

2022 소실 展 (갤러리 별일, 부산)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전남)

2021 뇌 과학 x 예술 전시 파동(波動) 展 (부산 과학문화거점센터, 부산)

2021 창살 밖의 지옥 展 (복합문화공간/해방자유, 부산)

2021 무_우우게 展 (Different days, 부산)

2021 Fit needs 展 (갤러리 523 쿤스트 독)

| 퍼포먼스 |

2023 Gift Vol.1 여기에도 눈 오프닝 퍼포먼스 (상상마당, 부산)

2023 Artist oenn x parkyounghwan dj mix (차체기획)

2023 'Notice' 展 오프닝 퍼포먼스 (상상마당, 부산)

2023 박영환 개인전/퍼포먼스 경계:우리가 지내온 세계에 서서 바라본 세상은 고요한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새우고 (전시공간 영영, 부산)

2022 '상생' 프로젝트 라이브 퍼포먼스 (부산광역시 후원)

2022 '2022 아시아프' 라이브페인팅 (홍익대학교미술관, 서울)

2021 Roo- colla '고향을 떠난 이방인' Art work video참여 (부산문화재단)

2020 '아트 월 프로젝트' 라이브페인팅 (부산, 금정구청 주최)

| 작가노트 |

내 회화 속의 창은 현재와 과거의 경계지점이다. 창 안의 검정 구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흰 구체는 삶의 마지막 지점인 죽음을 암시한다. 작품을 관람하는 이의 시점은 창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창밖의 풍경들은 지나온 삶의 궤적이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나온 수많은 현재들이 희미한 구체의 형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즉, 희미한 구체는 흐릿해지는 추억과 잊혀가는 기억들, 휘발되는 감정 같은 것들인 것이다. 그래서 내 작품 속에 내리는 눈은 지나간 현재들을 덮고 있다. 이는 스며든 먹을 지워내는 눈의 표현기법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창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들은 희미한 구체 속의 지나온 과거의 순간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다.

- 박영환 (DEC. 2023)

| 작가설명 |

2024년 <맥화랑미술상(신진,청년작가지원전)>은 올해의 수상자로 1998년생 박영환 작가를 선정했다. 올해 2월 부산대학교 한국화전공을 졸업한 박영환 작가는 이제 갓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선 신진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완성도나 발화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가 가진 내공이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작가는 선형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구체(球體)의 형태로 조형하는데, 구체의 명도에 따라 시점(時點)이 변화되며, 그에 따라 개인의 경험과 기억의 선명도가 달라진다. 짙은 검정같은 낮은 명도의 구체는 현재의 삶과 선명한 기억, 생생한 경험 등을 상징하고, 구체의 명도가 높아질수록 휘발되어 사라지는 기억이나 추억, 감정과 같은 과거의 행적을 의미하며, 흰 구체는 죽음을 암시한다. 작가의 작품 속에서 관람자는 창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시점(視點)을 취하고 있는데, 창밖 풍경 속에 자리한 희미한 구체들은 지나온 삶의 궤적으로 흐릿해진 추억과 잊혀져가는 기억, 휘발된 감정과 같은 것들이며, 쌓이거나 내리고 있는 눈은 이러한 풍경을 아스라이 덮어간다.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과 개인적 '경험', '기억', '감정'과 같은 비물질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창'과 '구'라는 시각적인 형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작가는 선형적인 시간과 체득된 경험, 기억을 '경계'로 분절하며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다. 젊은 작가가 초대된 화면 속 공간 안에 선 관람자는 자신의 삶을 구체화된 풍경에 투영하며 사유의 시간을 갖는다.

8th 맥화랑미술상(신진,청년작가지원전) 박영환 개인전은 《흰》이라는 타이틀로,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원예술 형태의 퍼포먼스 공연 및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2차원 평면회화의 형식적 한계를 3차원의 무대 위에서 입체적이고 표현적으로 확장시키는 퍼포먼스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운드 퍼포머 '장희진'과 부산대 현대무용 전공의 무용수 '박준형'이 함께하며, 그간 대안예술, 비주류예술로 취급되어 온 탈장르적 예술을 갤러리라는 상업공간에서 선보임으로써 평면 회화와는 또 다른 미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 맥화랑 큐레이터 김정원 (2024)



▲ 8th 맥화랑미술상 박영환展 《흰》 | 박영환작가 퍼포먼스 전경

Younghwan PARK 박영환 (b.1998-)

| Education |

- 2024 B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Korean painting
- 2016 Busan Arts High School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ne Arts

| Solo Exhibitions |

- 2024 8th Gallery MAC Young Artist Prize 'Younghwan PARK' <White> (Gallery MAC, Busan)
- 2023 The world that we've been in, the world that we've been looking at Staying us through the quiet day and night (exhibition space Yeongyeong, Busan)
- 2022 Park Young-hwan Individual Exhibition: When the water starts to dry (Modern Art Center, Busan)

| Exhibition curating |

- 2022 'Win-Win' Project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 Selected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

- 2024 ART BUSAN (Bexco, Busan)
- 2024 2024 BAMA (Bexco, Busan)
- 2024 ONE Art Taipei (Taipei, Taiwan)
- 2023 Peace, Piece, Place (Gallery hue, Busan)
- 2023 Gift Vol.1 Snow here, too (Sangsang Madang, Busan)
- 2023 Ulsan International Art Fair (UECO, Ulsan)
- 2023 Gallery MAC Annual Exhibition '10-200, Happy Artworks' (Gallery MAC, Busan)
- 2023 Spring Break 展 (Ezel Gallery, Busan)
- 2023 "Notice" 展 (Sangsang Madang, Busan)
- 2023 Asif Artist Invitation Exhibition (Gallery Daon, Seoul)
- 2022 'Win-Win' 展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 2022 Ulsan International Art Fair (Ueco, Ulsan)
- 2022 Wasusan 展 (Gallery Spring, Daegu)
- 2022 Make me dream of 2022 Busan Youth Art (Geumnyosan Station Gallery, Busan)
- 2022 Youth Writers' Exhibition 'It'da' 展 (Haeundae Atelier/Haridan Museum, Busan)
- 2022 Disappeared 展 (Gallery Star, Busan)
- 2021 Jeonnam International Ink Biennale (Mokpo Culture and Arts Center, Jeonnam)
- 2021 Brain Science x Art Exhibition Wave(波動) 展 (Busan Science and Culture Base Center, Busan)
- 2021 Hell 展 outside the cage (Complex Cultural Space, Freedom of Liberation, Busan)
- 2021 Mu_Uge 展 (by date/Busan)
- 2021 Fit needs 展 (Gallery 523 Kunst Dog)

| Performance |

- 2023 Gift Vol.1 Snow Here, too Opening performance (Sangsang Madang, Busan)
- 2023 Artist oen x Parkyounghwan dj mix
- 2023 Announcement 展 Opening Performance (Sangsang Madang, Busan)
- 2023 Park Young-hwan's Individual Exhibition/Performance Boundaries: Standing in the World We've Been to A world that stands by us still through day and night (Exhibition Space Yeongyeong, Busan)
- 2022 'Win-Win' Project Live Performance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 2022 Live Painting "Asiaf"
- 2021 Participating in the 2021 Lucola 'The Stranger Who Left Home' artwork video (Busan Cultural Foundation)
- 2020 'Art Wall Project' Live Painting (hosted by Busan Geumjeong-gu Office)

| Artist Statement |

The window in my painting is the boundary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The black spheres in the window mean life living in the present, and the white sphere implies death, the last point of life. The perspective of the viewer of the work consists of looking at the scenery outside the window from the creation, and the landscapes outside the window are the trajectories of life that have passed. Numerous presentations passed in each life have the shape of a faint sphere.

In other words, faint spheres are things like blurred memories, forgotten memories, and volatile emotions. So the snow in my work covers the past present. This is also the reason for using the expression technique of the eyes to erase the soaked ink. Works without windows are stories of each passing past moment in a faint sphere.

- Younghwan PARK (DEC. 2023)



▲ 8th Gallery MAC Young Artist Prize 'Younghwan PARK' <White> | Younghwan PARK Performance View



▲ Younghwan PARK Installation View